

가르치기와 배우기

강 경 화

동덕여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어 찌다 보니’ 남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도 벌써 십오륙 년이 되었다. ‘어 찌다 보니’라고 한 것은 본래 나는 남을 가르치는 직업을 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런 길은 가지 않으려고 대학에 다닐 때에도 굳이 교직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부하는 게 좋아서 대학원에 남고 이렇 저렇 하다 보니 그만 강단에 서는 게 직업이 되고 말았다. 처음 몇 년간은 그냥 강사나 하다 말 작정이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전임 교원이 되고 보니 그대로 그것이 평생 나의 길이 되고 만 것이다.

가르치기보다는 시를 쓰고 창작을 하고 싶었던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들은 부러워하는 위치에 서있으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많았다. 선생이라는 위치가 자꾸만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았고, 자유롭게 뻗어나 가야 할 상상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여겨졌

기 때문이다. 마치 선생만 아니면 온 세상을 편력하면서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다는 듯이 남모르게 한숨을 쉬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했다.

그뿐만이라. 학교 일이다, 집안 일이다, 잠시도 한가할 틈이 없이 부산하게 뛰어야 하는 신세를 한탄하면서 일 년만이라도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무언가 해낼 것 같은 아쉬움에 잠기곤 하였다.

그러다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난 작년 부터 비교적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다소 한가해지자, 나는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창작의 의욕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다른 일에 몰릴 때는 오히려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 싯귀를 끄적거렸는데 막상 시간이 나자 내 머리 속은 텅 빈 듯이 시 한 줄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다. 너무나 오랜 세월을 뒷전으로 밀어 놓은 시의 샘이 말라버렸거나, 아니면 본래부터 시인이 되기보다는

가르치는 일이 내게 더 맞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시를 쓰는 일에 흥미를 잃게 된 대신 나는 다른 흥미를 얻게 되었다. 사 년 전부터 시작한 禪이 바로 그것이다. 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가 하는 선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하는 참선이 아니라 몸의 동작을 통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풀어내는 선이다. '아-미-타-불'이라는 화두를 잡고, 오로지 '아는 자', '보는 자', 즉 관조하는 자의 입장이 되어서 자신에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욕망과 감정을 스스로 보아내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뿌리 없이 일어나는 과거와 미래의 번뇌와 망상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허상으로 보지 못하고 담아두고 있으면 실체가 되어 현실이 되고 만다. 우리는 그 허상을 실상으로 보고 헛된 삶을 아등바등 살고 있는 셈이었다.

처음 이 년간은 남편과 함께 경기도 이천에 있는 선원에 가서 12주간의 이론을 들은 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선을 하러 갔다. 오랜 동안 시간에 쫓겨서 각박한 생활을 하던 나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의 이천 나들이란 굉장한 것이었다. 봄이면 꿈결처럼 피어 있는 진달래와 개나리 숲을, 가을이면 가냘픈 자태를 바람에 날리는 코스모스 무더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토요일 저녁이면 이천의 장암리의 산 속으로 달려 갔다. 또한 밤에 공부가 끝난 뒤에는 함께 공부하러 다니던 후배나 친지들과 이천 휴게소에서 만나 뜨거운 우동을 훌훌거리며 먹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며 그날 있었던 공부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앉아 있었다. 때로는 그 늦은 시각에도 근처의 광주로 가서 유명한 맛있는 음식도 골라 먹었다. 늘 가르치는 입장에서 오랫동안 배우는 입장이 된 우리는 어린 학생들처럼 동심으로 돌아가 깔깔거리며 흥분하게 시간을 보내곤 한 것이다. 그 중에는 선이나 정신세계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도 계셔서 우리는 그분의 강의 강의를 듣기도 하였다.

이처럼 노는 맛 반, 새로운 세계를 즐기는 기쁨 반으로 세월가는 줄 모르던 우리는 서울 신사동에 새로운 선원이 생기자 매일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선을 하며 제법 전문적인 수행자가 된 듯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선이란 새로운 지식을 쌓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껍질을 벗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하면 할수록 복잡한 머리를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의 대부분을 우리는 실제의 생활에서 거의 쓰지를 못한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진리의 말씀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의 없다. 당장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하나도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러니 알고 보면 우리는 마치 사용법을 듣기는 했지만, 제대로 쓸 줄 모르는 무기를 온 몸에 달고 월남 정글에서 있는 람보처럼 온갖 지식을 갖고도 실생활에서는 전혀 속수무책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면서도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우리는 허세를 부리게 되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니 안팎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처럼 안팎이 다른 부분을 드러내어 그것을 인정하고 맞추어 나가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답을 통해 공부해나간다. 그 문답의 내용은 선을 하는 도중에 자신이 본 생각이나 내용들이거나 생활에서 직접 부딪치는 문제들이다. 가르치는 분과의 문답을 통해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빈틈없이 맞닿아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의 실생활이 우리의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안팎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가 해답을 발견하고 자신의 길을 찾게 된다. 이처럼 선이란 이치와 실제, 앎과 행동, 공부와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가르치는 분을 중심으로 이십여 명이 둘러앉아 문답을 주고 받으면서 나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선 강의자 한 사람이 많은 학생들을 두고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우리의 교육 방식의 한계를 한층 더 절감하게 되었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도 말했듯이 지식이란 밖에서 안으로 집어 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이며, 가르치는 사람은 그것을 도와줄 뿐이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그렇다면

배움이란 배우는 사람의 의지가 절대적인데 우리의 대학교육 현실은 배우는 사람의 의지보다는 가르치는 사람의 의지가 우선하게 되어 있다. 오히려 교육을 하면 할수록 배우는 사람은 수동적이 되어가고 스스로 모색한다든가 선택을 하는 힘은 줄어들게 되기가 일쑤다.

사 년여의 선 수행을 통해 함께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얼굴빛이 달라지고 건강이 좋아진 것은 물론 각종의 만성병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 집에서도 감기약, 소화제, 보약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병원에 가는 일도 거의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갈등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항상 모든 일을 어렵고 복잡하게 처리해야만이 보람을 느꼈던 나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남에게 본심을 잘 드러내지 못하던 나는 남들에게는 ‘사람 좋다, 깔끔하다’는 말을 듣는 반면, 내 자신은 혼자서 둘러둔 울화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곤 했는데 그것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공격성이 어느 순간에 불쑥 불쑥 튀어나오곤 했는데 그것도 줄어들게 되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진보라면 과연 현재의 교육은 그것을 충분히 이루고 있는 것일까? 진보가 외적인 형태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면 아마도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물은 그냥 두고 포장만 바꾸는 식의 진보가 진정한 것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영문학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

스, 로마로부터 중세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문명은 엄청난 발전을 해왔으며, 인간의 외적인 생활 양식 역시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 과거에는 신의 영역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던 것들이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 문명의 안에서 사람이 느끼고 고민하고 갈구하는 것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 비극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격정, 애욕, 질투, 복수와 살인... 이런 것들이 중세의 작품에도 나타나고, 셰익스피어의 비극에도 나타나며, 현대의 작품에도 원형 그대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앞으로도 인간의 영원한 주제가 될지도 모른다. 물론 그것을 문학의 불멸성이니 어쩌니 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나 진보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문명이라는 화려한 그릇에 담긴 마음이라는 내용물은 마찬가지로라는 이야기다.

선을 통해 내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게 되자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한 개인을 중심으로 볼

때에도 박사나 교수나 하는 화려한 외적인 성취와 내적인 발전과는 무척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내 마음 속에는 박사나 교수와는 전혀 무관하게 억눌린 분노, 질투, 공격성, 의심, 한없는 욕심, 교만함, 사된 애욕이 가득 들어 있었다. 어느 때는 그 모습이 하도 적나라하고 선명해서 구역질이 날 때도 있고, 아예 몸살이 날 때도 있었다. '아아, 이게 숨겨둔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탄식이 저절로 우러 나왔다. 마음 깊이 이런 것들을 담아 두고 아무리 겉치장을 하고 모습만 바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 참다운 진보란 없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도 무조건 서양의 외양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선이라는 좋은 방법을 통해 참으로 변화하고 진보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

강경화/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시집 『가거라, 사랑의 세월이여』와 『Blake의 '자아'와 전도된 세계』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